

# “5·18 무차별 사격” 신군부 문서 2천건 공개

### 최경환 의원, 보안사·군 상황일지 등 확보 화염방사기·무장헬기·편의공작대 등 적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5·18 관련 문건 목록이 5일 공개됐다.

대안신당 최경환(광주 북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보안사 생산문건 목록 2,321건과 일부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5·18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요청 해 확보한 자료들이다.

앞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같은 방식으로 보안사가 5·18 당시 촬영한 사진첩을 확보해 공개한 바 있다.

최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문건 목록

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보안사(기무사 포함)가 생산한 문서들이다.

주요 목록은 5·18 당시 보안사가 수집한 상황일지 전문과 군 작전일지, 전남도경 상황일지, 5·18 직후 군 작전상황 전방과 문제점, 추후 대책 등이 담긴 ‘광주사태 분석’ 등이다.

1988년 국회 5·18정문회를 대비해 작성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질의응답 문건, 1995년 5·18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동향 분석자료,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 동정, 5·18단체와 정치·종교·언론·노동계와 재야 등의 동향파와 문건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 가운데 ‘광주사태 분석’과 ‘광주사태 상황일지’ 등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전문도 확보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사태 분석’에는 ‘편의공작대’로 불리는 선무공작대 투입·운영, 민간인 45명 정보요원 활용, 화염방사기 30대 사용 등의 사실과 유사시 항공자원을 기동타격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안사가 감정과 민간정보요원, 편의공작대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작성된 ‘광주사태 상황일지’에는 5·18 당시 상황이 시간대별로 상세히 담겨 있다.

여기에는 ‘무장헬기 해남 현지급파’ ‘폭도들이 선제공격 시 무차별 사격하라’는 31사단장 명의의 지시 등도 포함됐다. 5·18 당시 전국 동향과 서울 관내 고교의 교련용 무기를 회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최 의원은 헬기사격 진압 의혹에 대한 보안사의 첩보수집 문건과 전 전 대통령의 관련 반응, 5·18특별법 제정 대응, 5·18단체 외해 유도전략 문건과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5·18 구묘역) 이전대책에 대한 ‘무등 사업 계획 및 비둘기사업’ 문건도 입수했다.

특히 1995년 5월 18일 생산된 문건에는 같은 해 5월 10일 한국을 찾아 헬기사격을 증언한 미국인 아놀드 피터슨 목사에 대해 전두환씨가 격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 따르면 전씨는 1995년 5월 13일 태릉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경호실장을 긴급 호출해 연희동 자택에서 대책을 논의했고, 회의에서는 동일 기종 무장헬기로 실제 사격을 시범 보여 피터슨 목사 스스로 착각했음을 시인하게 하자는 방안도 제안됐다.

또 1986년 5월 18일에는 광주 프로 야구 관람객들이 5·18 추모행사에 합류할 것을 우려해 경기 장소를 전주로 옮기고 경기 시작 시간을 1시간 앞당겼으며, 전날 열린 경기에 대해서는 심판에게 경기 진행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5·18을 소재로 한 영화 ‘꽃잎’을 김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동향 분석 문건과 5·18 관련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사전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도 함께 확보했다.

최 의원은 “자료 원본까지 받아 분석하면 5·18 당시 계엄군 진압작전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전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 이뤄진 5·18 왜곡·조작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가와 언론 등이 제기하고 있는 보안사의 5·18 관련 문서 파괴 의혹에 대한 진상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안신당은 앞으로 5·18과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서는데 이어 이번에 확보한 문건 목록과 문건 내용, 사진첩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서울=강병운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	-7~3	흑산도	☁️	3~5
담양	☀️	-7~4	구례	☀️	-7~5
화순	☀️	-8~3	곡성	☀️	-9~4
영광	☁️	-7~3	완도	☀️	-3~5
함평	☀️	-6~4	강진	☀️	-4~4
무안	☀️	-4~3	장흥	☀️	-5~4
영암	☀️	-6~4	해남	☀️	-5~4
진도	☁️	-2~4	고흥	☀️	-6~5
신안	☁️	-5~4	보성	☀️	-7~3

일출 07:26 일몰 17:20  
월출 14:08 월몰 01:22

목포	만조 09:18 21:42	여수	만조 04:51 17:17
	간조 02:56 15:04		간조 10:34 23:42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전 남친이 불 지르려 한다”

### 경찰, 거듭된 신고에도 범행 못 막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고용해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미리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공군 부사관인 A(22)씨는 지난달 24일 B씨를 시켜 전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비밀하우스 꽃집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이 범행을 사주할 사람을 찾기 위해 SNS에 ‘죽을 용기를 가지고 일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공범 B씨보다 먼저 연락받은 한 남성이 있었다.

A씨는 지난 9월 이 남성에 “내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내주면 화재보험금을 타 사례하겠다”고 제안했다.

범죄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던 이 남성은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A씨가 방화 장소로

지목한 꽃집에 연락해 “방화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줬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A씨의 전 여자친구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을 찾아 광주 서부경찰서를 3차례 찾아가았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가 불을 지르려고 모의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변변히 A씨의 전 여자친구를 돌려보냈다.

결국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A씨는 SNS를 통해 B씨를 만나게 됐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이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밀하우스 2동이 전소됐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경찰은 B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로 넘겼다.

이와 관련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새마을 지도자 대회 5일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2019 광주시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과 대중속에서 생명·평화·공경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동구 내년 3월까지 방재 추진

광주 동구는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해 예방적 방재체제를 구축,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너릿재·무등산장 진입로·남광주 고가도로 등 결빙 우려가 높은 도로를 제설 우선노선을 정해 중점 관리, 차

량 통행 안전을 확보한다.

또 단계별 비상 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살포기·제설기·굴삭기 등 총 28대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180t, 소금 500t 등 제설자재를 확보했다. 제설자재는 최근 3년 평균 사용량의 153% 수준이다.

살포기 3대와 덩크트럭 1대 등 노후 제설장비는 교체 또는 폐기하고, 제설 장비·자재 점검을 마쳤다.

상승결빙 지역인 무등로 등 10개 구간과 이면도로 경사지 30곳 등 총 40곳의 적사함에 모래주머니 800포를 배치했다. 기타 적사함 400곳에도 총 4,000포를 뒀다. /고광민 기자

### 내연녀 살해 후 자살 위장 40대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재수사해 내연녀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내연녀 B(당시 38세)씨를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태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A씨가 동만 자살을 기도했다고 주장하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수사는 답보 상태를 보였다.

사건을 맡았던 부산 검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부산지검은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순천지청은 9월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A씨가 B씨를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법의학자의 자문을 통해 피해자가 착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이전에 목이 졸려 실신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직후 A씨는 일산화탄소를 마셔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왔다”며 “법의학자문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자살로 위장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재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A씨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신뢰와 고객감동 서비스로 국내·외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태양광 공사 최저가격,  
최고품질 시공보장!!

(주)세진엔지니어링  
SEJIN ENGINEERING CO., LTD

**태양광 부지 매입!!**

- 태양광발전사업 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 발전허가 · 개발행위 · PPA완료 부지 우선매입

**태양광 발전소 분양·시공 주택, 공장, 축사 등 설치!!**

- 태양광발전소(RPS)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 건설링
- 정부보조금 지원사업(단독주택, 건축물 태양광 설치)
- ESS(에너지저장장치)사업, 시공
- 태양광 조달우수업체(공공기관, 지자체, APT 등)

**주요사업**

- 산·재생에너지 우수전문기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 전기, 소방, 기계설비공사업
- 전기 종합감리업 및 설계업 1종
- 정보통신 공사업/난방시공업체(제1종)
- 금속 구조물·창호공사업
- 조달우수업체 (태양광발전시스템)
- 공동주택(아파트)설계, 감리업
- 한전 무정전 협력업체(배전단기)
- 전기차충전기, 전력량계, 파형관 사업

HP. 010-3735-7113

대표전화 : 1588-4556 문의전화 : 062) 384-6333